



서부사료(주)

2006 경영계획 발표회 가져



서부사료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세진)는 지난 해 12월 9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동서증권연수원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6년 경영전략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14개 부서의 2006년 경영계획 발표와 함께 올해 화두가 되었던 블루오션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해의 시간도 가졌다.

서부사료는 2006년 5대 경영방침으로 '현장중심, 고객중심 경영', '경영자 마인드를 통한 최적화 경영 실현', '최고의 가치실현을 위한 인재양성',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도전경영 실현', '친환경 공장 조성 및 운영'으로 책정했으며, 이어 각 팀별 2006년 경영계획 발표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세진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쟁에서 지도와 전략이 중요하듯 2006년 한해에 회사의 명확한 전략지도가 작성되어야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의 가치창출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컨설턴트가 되어야 한다"면서 "사랑과 여유,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주)우성사료

경산공장 정부 HACCP 인증 획득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는 지난해 12월 27일 농림부로부터 경산공장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보다 깨끗한 배합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이는 2005년 1월 HACCP팀 가동 후 10개월의 기간 동안 휴일도 반납하고 노사가 함께 노력해 이룩한 쾌거다.

경산공장은 1983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전체 작업장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그 속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여서 문제가 발생할 요소를 갖고 있었다.

우성사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장 바닥 전체에 에폭시를 깔았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나 시멘트 바닥이 충격이나 마모에 의해 발생하는 분진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바닥면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시공 후 먼지, 기름, 약품 등이 오염되었을 때 제거가 용이하고 미끄럽지 않아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은 바닥청소를 걸레로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깨끗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우성사료는 이와 함께 항생제 실을 별도 분리해

약품 오·투입으로 인한 위해요소 발생을 최소화했으며, 노후한 시설을 새롭게 교체, 수리하는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배합사료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김광영 생산부장은 “사료공장 HACCP 인증을 위해 팀 전원이 올 초부터 최선을 다했다”며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위해요소 차단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TS대한제당 사료사업본부

잠실로 본사 이전



대한제당 사료사업본부가 1월 14일자로 인천공장에서 잠실 대한제당 빌딩으로 이전한다.

무지개사료는 사료공장의 HACCP획득과 영국 BOCM PAULS社 등과 기술협력을 통한 신제품개발 등 제품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본사 이전으로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한편 대한제당은故 인송 설경동 회장이 회사를 세운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드림2010비전과 경영기본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
- 전화 : (02)410-6000(대)
- M&D팀 : (02)410-6211
- 품질경영기획팀 : (02)410-6206

(주)그린엔푸드

‘2005 참된 사랑나눔’ 행사 실시

(주)그린엔푸드(대표이사 김병갑)는 지난해 12월 31일 전 임직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회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2005 참된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주)그린엔푸드 임직원 100여명은 경기도내 독거노인, 불우장애인, 인보가정 등 총 15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고추장, 설탕, 식용유 등 생필품과 함께 모금액 300만원을 전달하고 집주변 청소, 집안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주)그린엔푸드는 앞으로 불우장애인 러브하우스 리폼 행사를 펼쳐 기부나 단발성 도움보다는 임직원이 직접 시간과 노동력을 할애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현장취재 72P 참조).

(재)카길 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2005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재단법인 카길 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김기용)은 지난해 12월 21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

서 2005년 정기총회 및 카길 애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에는 개인부문 수상자로 서울대 수의대 이문한 교수, 진주산업대 동물소재공학과 이철영 교수,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조정래 축산사무관이 선정돼 상금 3백만원과 상패가 수여됐으며, 단체부문에는 (사)대한양돈협회가 수상했다.

겨울철 축사화재 비상

전기합선 및 전열기구 과열에 의한 화재가 60%에 이르러

최근 건조한 날씨와 한파가 계속되면서 축사난방을 위해 전열기구 사용도 급증해 전기누전 등으로 전국적으로 축사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10건으로 농가당 평균 5천8백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화재는 주로 양돈장(70%)과 양계장(20%), 기타(10%)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시각은 저녁부터 새벽 사이가 60%, 발화의 원인은 전기합선, 전열기구 과열, 용접부주의, 원인불명 등이고, 이 가운데 전기합선 및 전열기구 과열에 의한 화재가 60%에 이르고 있어 축산농가의 전기 안전사용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축사의 전기로 인한 화재는 전

기용량 초과사용, 전선 및 전열기구 정비부실, 부주의한 사용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축사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농가가 필요한 전력소비량을 확인하고 부족시 전력공사에 신고하여 반드시 승압공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축사 내외부 전선 피복상태와 안전개폐기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를 해야 하며 또한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특히 보온기구와 전기 배선의 주기적인 청소로 거미줄 제거와 먼지 등이 끼지 않도록 관리하고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축사에서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와 소방수를 비치하고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로를 확보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인사 소식

■ 농협중앙회 (2006년 1월 1일자)

〈승진〉	〈전보〉	• 축산컨설팅부장	강두승
• 상무 남성우	• 축산경제기획실장	이종윤	• 축산지원부장
• 상무 강명구	• 축산유통부장	김운철	• 목우촌분사 본부장
			정찬주

■ (주)하림 (2006년 1월 2일자)

〈승진〉	• 상무 변부흥	• 상무보 박희권
• 부사장 오관석	• 상무 홍윤원	• 상무보 오준호
• 상무 정문성	• 상무 이정오	• 상무보 권정택

■ 서부사료(주) (2006년 1월 2일자)

〈승진〉	• FC지원팀 부장	이병진	• 연구개발팀 과장	이승재
• 생산팀 이사대우	• 홍보팀 부장	함경숙	• FC사업팀 과장	김정욱
• 생산팀 차장	• 구매팀 차장	이석호	• FC사업팀 과장	김성일
• FC마케팅팀 부장	• 기획팀 과장	박진철	• FC사업팀 과장	권혁진